

안산에 외국인전용 법당 생긴다

20일 개원...한글학교·각종 상담 등 편의제공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에 이들을 위한 법당이 마련된다. 장소는 안산 보문선원(주 지 보립)이 위치한 현대소풍 3층. 3월 20일 문을 여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 법당은 법회는 물론 한글학교, 각종 상담활동 등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운영은 보문선원과 스리랑카 출신인 왓치사라 스님이 맡기로 했다. 법당에 상주하면서 예불을 모시고 외국인 노동자들과 상담을 할 스님도 조만간 온다. 보문선원 측은 현재

스리랑카 노동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와 법회를 다른 나라 출신 노동자들에게도 개방해 진정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당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법당은 한글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해 3월부터 시작한 보문선원 한글학교가 전신이다. 보문선원 주지 보립 스님은 왓치사라 스님과 인연으로 한글학교를 개설했다. 매일 두 차례

일요일 법회와 수업을 진행한지 1년 만에 참여하는 노동자가 20여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김봉래)의 이연옥 국제포교사가 직접 한글학교 강사를 맡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개원을 앞둔 외국인 전용법당은 앞으로의 운영자금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한글학교를 운영해 온 보문선원의 지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만으로는 법당 임대비용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부족하기 때

문이다. 국제포교사회가 컴퓨터 지원, 한글 교육 자원봉사, 컴퓨터 교육 자원봉사 등을 약속했지만, 운영 자금 부족분은 후원에 의지해야 할 형편이다.

보문선원 주지 보립 스님은 "평소 어린이,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으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당이 없어 추진하게 됐다"며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전용법당이 원만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따르야 한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맑고 투명한 사회 만들어요" 정치·경제·공공·시민사회 4개 주제가 우리 사회 부패 근절을 위해 투명사회협약을 3월 9일 체결했다. 노무현 대통령(맨 왼쪽)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맨 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서 김규국 국회의장, 강신호 전경원

회장, 이근희 삼성그룹회장, 이남주 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 인사 45명이 협약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 법장 스님은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려노후복지제도도 투명사회협약과 관련 있다"며 "승려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면 종단 투명성도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박재원 기자

'천성산시민단체 연석회의' 발족

환경조사 사회적의미 여론화 등 주도

3월 20일경 천성산 환경영향 조사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불교환경연대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녹색연합을 비롯한 45개 시민종교단체는 3월 9일 '천성산을 위한 시민종교단체 연석회의(공동대표 노법·지을 등, 이하 연석회의)'를 발족했다.

연석회의는 앞으로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의 사회적 의미를 여론화하고 △생태기행과 역사문화기행, 천성산 식목행사를 비롯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진행하며 △100만 마리 도롱뇽 조영물 설치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월말

~4월초에는 천성산 문제와 관련한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하며 환경조사 기간 중 각계 의견을 발표한다.

연석회의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공동대표는 "연석회의는 천성산 문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족식에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을 스님은 "공동조사에서 터널과 늪, 지하수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터널 자체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철주 기자

교구본사에 노인복지시설 설립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0주년 계획 수립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지현)이 교구본사별 노인복지시설 개소와 복지행정체계 구축을 '설립 10주년 특별기획사업'으로 선정했다.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은 3월 10일 '사회복지재단 10주년 특별사업' 14개항 발표를 통해 '노인복지사업 추진'의 방안으로 교구본사별 노인복지시설 유치 또는 자체 운영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고령화사회 문제와 승려노후복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재단에 행정

직 집행권이 없어 종단 복지를 총괄할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해 종법 재·개정, 연구소 개소, 불교복지회관 건립 등의 과정을 거쳐 행정 정책기구로 바로 세우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재단은 6월 9일 10주년 기념법회를 병행하고 '불교사회복지 아젠다 개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종단 복지 체계화의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단 이미지 통합 사업과 10년사 발간, 후원사업 및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 추진된다.

김강진 기자

출가·열반절 정진주간 사찰서 참회하며 뜻깊게

전국서 '108 대참회문' 발원문 낭독

불교계 4대 명절에 속하는 출가절(3월 17일)과 열반절(24일)을 잇는 8일동안 전국 주요사찰들이 참회 정진에 들어간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 02-2011-1905)과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 02-733-7277)는 출가열반절 참회발원 정진법회 '출가에서 열반까지-발심과 수행을 선도하며'를 진행한다. 서울지역 포교신도단체 소속 회원 및 재가 불자들은 매일 조계사에서 저녁 예불을 마치고 초정법사 법문을 들은 뒤 108대참회문 발원문을 낭독한다. 법사로는 포교원장 도영 스님(17일)을 시작으로 암도·명진·수불·정락·청화·무진장·성타 스님이 초청됐다.

각 교구본사 및 말사와 광역신도회 등도 108 참회, 경전독송, 입정, 서원문과 수행점검표 작성, 보시금 적립 등 개인 정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개별 사찰에서도 출가열반절 행사가 진행된다. 서울 불광사(02-413-6060)는 '출가에서 열반까지 바라길 수행정진 발원'이라는 주제로 출가·열반절 법회를 봉행하고, 바라길 수행 특별정진과 참선, 사경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 조계사(02-732-2115)는 출가·열반절 법회 외에 발심정진주간을 선포하고 금연 금주 육식안하기 오후불식 등으로 절약한 금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한다.

대구 법왕사(053-766-9088)는 정진주간동안 팔상성도(八相成道·부처님 일대기) 대법회를 오전 10시 30분 108배를 시작으로

보행한다. 봉인사 선원장 지산 스님을 비롯해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 스님, 동국대 교수 도오 스님 등이 8일동안 매일 법문한다.

창원 성주사(055-262-0108)는 오전 10시 108 참회기도로 시작되는 '니르바나정진대법회'를 개최한다. 8일동안 철불암 회주 월암, 부산 감포사 주지 혜충, 범어사 한주 관조 스님 등 8명의 스님이 법문한다.

부산 흥법사(051-508-0345)는 '우리도 부처님같이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주제로 예참기도를 진행한다. 자비도량참법 독송과 더불어 기도기간 중 수계식도 준비하고 있다. 광명 금강정사(02-893-2700), 통도사 부산포교원(051-816-2241), 인천불교회관(032-442-9910) 등도 자비도량 참법 정진을 한다. 서울 봉은사(02-511-6070)는 <유행경> 강독을 정진주간 내내 진행하며, 서울 구룡사(02-575-7766)는 <금강경> 사경 및 108배 참회 정진기도를 봉행한다. 정토회(02-587-8990)는 전국법당에서 출가열반일 융맹정진을 발한다.

서울 도선사(02-993-3161)는 열반절인 24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오전 10시부터 혜성, 현성, 해자 스님이 연달아 법문을 하고 고성 문수사 경천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를 수계한다. 서울 법장사(02-971-0303)는 23일 강화 보문사 전등사로 사찰순례를 떠나 출가열반의 의미를 되새긴다. 광주 함림사(062-375-7600)는 열반절에 조사스님에게 올리는 차례식을 봉행한다.

강지연 기자

을 남북공동행사에 불교계 적극 참여키로

불교계가 6·5남북공동선언 5주년과 8·15광복 6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남북공동행사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 불교평화연대 등은 3월 8일 송현클럽에서 간담회를 갖고 '불교계 네트워크'를 구성해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각 종단과 단체들은 남북공동행사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실무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연꽃특별대상을 받은 애니메이션 '동행'.

전국불교만화공모전

특별대상 진미정 '동행'

영남불교대학 불교만화연구소(소장 김해)가 개최한 제4회 전국불교만화공모전 연꽃특별대상(문화관광부 장관상)에 진미정의 애니메이션 '동행'이, 연꽃대상에는 최덕현씨의 인쇄만화 '진리의 말씀'이 선정되는 등 총 29명의 수상자가 결정됐다.

수상작품은 영남불교대학 불교만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불교만화잡지에 <불교만화이야기>와 전시회를 통해 소개된다. (053)474-0344

강지연 기자

외국인학생 템플스테이

17~20일 금산사서

국내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중인 정부초청 외국인 국비 장학생들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3월 19~20일 김제 금산사에서 열린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선발 관리하는 국제교육진흥원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템플스테이를 선정했다. 템플스테이사무국은 프로그램 참가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템플스테이에서는 예불을 포함한 참선, 다도, 스님과의 대화, 새벽길 산책, 염주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02)732-9925

강지연 기자

영산재보존회 옥천범음대학 2005년도 작법반 신설 모집요강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로 단체지정되어 불교 교역자로서 의전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계승 전수하며 한국불교 문화의 꽃인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을 영산재 회원 및 학인들의 특별한 요청에 의하여 2005년도부터 작법반을 신설 개강하여 범음, 범패 학과는 심사후 편입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 종단을 초월하여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 작법반 신설 개강

| 학 년 | 강 의 내 용 | 교 수 진 | 모집인원 |
|-----|-----------------------|------------------|------|
| 작법반 | 바라 일체, 나비춤 일체, 법고춤 일체 | 교수 이기봉 조교 한해사 | 50명 |

2. 모집내용 : 편입생

| 학 년 | 강 의 내 용 | 교 수 진 | 모집인원 |
|-----|-------------|-------------|------|
| 1학년 | 상주권공과(일용의식) | 전수교육조교 이기봉 | 30명 |
| 2학년 | 각매과 | 준 보 유 자 김구해 | 20명 |
| 3학년 | 영산과 | 전수교육조교 마일운 | 20명 |
| 이 론 | 불교의식각론 | 교 수 심만춘 | - |

3. 응시자격

승려·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 (2)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 (3) 증명사진 3매 (반명함)

5.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3월 14일 ~ 3월 24일

6.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옥천 범음대학 교무처

7. 합격자 발표 :

2005년 3월 25일

8. 추가 입학일 :

2005년 3월 28일 월요일 오후 3시

9. 특 전 :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10. 문의처 :

☎1210 - ☎15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옥천범음대 02)392-3234
종 무 소 02)392-3007~8
팩 스 02)393-9450